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6. 7(목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대중교통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김기대, 사무관 문기성 • ☎ (044) 201-3823, 3832
	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TF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팀장 강욱, 사무관 이경수 • ☎ (044) 201-4978, 4979
보도일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근로시간 단축 여파 버스터미널 시외버스 예매 중단 보도 관련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7월 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특례제외에 대비하여 지난 5월 31일 ‘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’을 발표하였습니다.
 - 노사정 선언문의 핵심은 7월 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특례제외가 시행되더라도 국민 불편 방지를 위해 탄력 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적용을 통한 ‘현 운행수준 유지’와 ‘노동자 임금보전’에 있습니다.
 - 국토교통부는 노사정 합의 정신에 따라 각 관할 지자체에 현 운행수준 유지를 위한 사업변경인가 반려, 노동자 임금보전 등에 대한 원만한 노사합의 유도 등 노사정 선언문이 잘 이행되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전달하였습니다.
 - 또한, 6월 중 지자체 집중 현장점검 등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면서, 업계의 혼란이 없도록 지원대책 안내 및 홍보, 운전자 채용·유지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한편, 일부 버스터미널의 예매 중단과 관련하여, 국토교통부는 7월 이후 운행에 예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버스업계 및 터미널에 전달, 조치하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시스템이 정상화 될 예정입니다.

< 보도내용 (6. 7, 한국경제, 연합뉴스, 머니투데이 등) >

- ◆ 7.1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외·고속버스 대다수 노선의 감회가 예상되어 7월 이후 온라인 예매 중단(동서울터미널은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지)
- 노사정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등 정부 대책에도 상당 규모의 운전자 채용이 불가피하여 교통대란을 우려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문기성 사무관(☎ 044-201-3832), 이경수 사무관(☎ 044-201-4979)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